

예수 성탄 대축일

제 1 독서 : 이사 52, 7-10

제 2 독서 : 히브 1, 1-6

복 음 : 요한 1, 1-18

순정이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요한 1,9).

92년 성탄절 메시지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시편 96, 11).

형제 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 말씀으로 그 기쁨을 노래해 왔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된 기쁨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희열보다도 더 크고 흡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도 함께 기뻐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영혼에 깊이 파여 있는 공허를 채워주시고 더 바랄 것 없는 만족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낸 사람은 자신이 애써 얻으려 하던 보물이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 나라는 발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발을 산다”(마태 13, 44).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사기 위하여 ‘있는 것을 다 판’ 사람들은 그 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산, 지위, 명성, 심지어 목숨보다도 그 보물의 가치를 더 중히 여겼던 분들은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히브 12, 1).

그리스도교 2천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쁨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요한 16, 22 참조)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쁨을 찾아내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노인 시메온은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루가 2, 29-31).

그런데 그 보물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 측에서도 마땅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시는 구세주를 향해서 목동들처럼 우리도 마주 나가 온 마음으로 맞이할 때에만 그분은 우리의 삶에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 구세주께서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뵈지 못하여 문 앞에서 쫓아낸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처럼,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세력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을 보면,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하려는 일이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구세주를 알아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यो 진리이며 생명이신”(요한 14, 6) 구세주께서 우리 마음과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깊이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묵시 3, 20).



아 기 예 수 님 께

축성탄
 착하고 부리런히
 일하면 농민들에게
 그 대기가 산타할아버지
 선물처럼 오게 하소서

농민 이 수근

축성탄!
 주님, 심판은
 빛이하여 저희
 학생들에게 지혜나
 건강을 주세요.
 중2. 절찬명(요셉)

성탄이 어둠을 밝히듯
 온누리를 더욱 환하게 하시고
 서로를 믿음의 보금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언론인 : 문 치 상

성탄일 돌아오니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채영란
 (아가다)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송인
 김 완구(안토니오)

보셨는지요?
 세상을 밝히는 기쁨의 별 하나
 들으셨는지요?
 하늘을 가득메운 천사들의 환호
 만나셨는지요?
 '우리나 함께 하시고자' 인신 하
 떨리는 기쁨과, 베풀어 줄
 '어둠속의 빛'으로 인신 그분을
 만나다.

정성만(서려자모한) 祝父.

마굿간의
 온기가 그

교사 : 한상

사랑이란 C
 인류에게 남
 기쁨은 주님께
 하나님의 사
 [상선] 주
 이 기쁨은
 송인

리는 성탄인사

느껴 보세요.
우리를 마음에 새겨줍니다.
두지개 저축 :
오션 (노엘라)

주님!
당신께 받은 넘치는 사랑
반만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교구청 김대원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의 생을
경축하며 ...
평범 회장
항의옥 (파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랑과 관심으로 안락시골
가져옵니다

- 신영 이천철 (노보오) -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과 계속 함께
하기를

주일학교 교사 정숙 (사비나)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
진정한 신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

회장 김도현

수님!
기대
나서
겨

아 기 예 수 님

탄 생 하 셧 네 !

다시 12월 성탄절에

우리들의 하느님이 어리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던 그날이 있었기에
나는 이 밤도 지복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나니
내일 아침 창을 열고 숨쉴 수 있나니
누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했던가
날마다 내 빈 방의 파수꾼 되시고



남은 여생 겨울길 동행해주시고
때물은 영혼의 옷 빨아주시며
새로 태어나는 설렘으로 문 열어주시는
12월이 있어 내 가슴 이같이 따뜻한 것을
땅 위에 12월 성탄절이 있어
세상은 이처럼 눈부시고 새로운 것을.

• 글 : 홍윤숙
(전문 중에서 발췌)